

포스코 파업 위기...협력사들 “산단근로자 생계 위협”

우수공급사협의회, 파업 중단 촉구
포항·광양 中企 근로자 큰 박탈감
선진적 노사문화·산업평화에 찬물
美 장벽·내수부진 등 위기 극복해야

포스코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들이 파업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우수공급사(PHP)협의회는 2일 ‘포스코 노조는 인근 산단의 중소기업을 외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포스코 노조는 즉시 파업 절차를 중단하고 협

상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전남노태풍 피해 복구에 이어 이번 포항 3FINEX 공장 화재 복구까지 PHP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은 포스코가 비단 포스코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포스코와 연계된 협력사 및 공급사의 일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파업사태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단된다면 태풍, 화재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어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항·광양지역 중소기업 근

로자들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포항이나 광양 산단의 노사문제가 비교적 잠잠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준 덕분이었지만 이제 파업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자랑하던 선진적 노사문화와 산업평화에 찬물을 퍼붓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될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시장의 높은 장

벽에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국내시장 공습이 압박해 있고 고환율에 따른 원료 수입가격 상승,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심화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포스코 서플라이체인이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란 마당에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얼마전 전남노극복을 모티브로 한 영화 ‘데드라인’이 개봉했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응원하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그때의 기적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 한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6시 포항제철소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어 3일에는 광양제철소에서도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11차례에 걸쳐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기본급과 격려금 지급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됐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롯데백, AI 선별 제주산 감귤 판매 롯데백화점이 오는 8일까지 광주점 등 전점에서 AI로 선별한 제주산 감귤을 한정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주산 감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과일의 상처까지 선별해 낸 감귤로, 약 12.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를 자랑한다. 제주산 AI 선별 감귤은 100g당 14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전남농업기술원-GS리테일, 농산물 판매기획전 성과

전국 GS슈퍼 500여개 매장
일주일간 3억9800만원 매출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GS슈퍼 500여개 매장에서 전남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기획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에서 개발한 신제품 농산물과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GS리테일과의 협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돼 온 이 기획전은 전남도 농산물의 수도권 및 전국 유통망 확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판매기획전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정무쌀, 용야 목이버섯, 해금기위, 팽이버섯, 고구마 등 다양한 신제품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이 포함됐으며, 총 3억9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과 직원들이 GS슈퍼에서 판촉전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제공

GS리테일과의 협업은 전라남도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남 농산물 홍보 및 판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판매 기획전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전남도 농식품들이 수도권 유통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향후 각 시군 특화상품과 맞춤형 농식품에 대한 유통처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전남 농산물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금호익스프레스, 5년만에 대졸 신입 공채

금호그룹의 고속버스 계열사인 금호익스프레스가 5년만에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2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금호그룹의 주력사인 금호익스프레스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광주에 근무할 신입사원 각각 4명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면 연수 등을 거친 뒤 본격 투입된다.

금호그룹은 금호익스프레스와 금호고속, 금호건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한편 이계영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 총괄사장은 지난달 14일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소영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소외계층 ‘김치 나눔’

상생봉사단, 40여포기 전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GGM은 이날 김장김치 40여 포기를

광산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성가정, 백선바오로의집을 비롯해 삼도동행정복지센터, 분량동행정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이화영아원 등에 전달했다.

전달한 김장김치는 GGM 상생봉사단 소속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지난달 30일 남구 입암동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에

서 진행된 지역사회 김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담근 것이다.

GGM 상생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중 경영지원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정성껏 버무린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노동 칼럼

광고대행업에서 10년째 일한 A씨는 현재 임금을 3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 일하면서 사업주와 쌓인 개인적인 친분도 깊어졌고, 사업주도 이번 건만 해결이 잘 되면 연말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퇴사를 조금씩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지만 진짜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이 깊어진다.

A씨와 같이 임금이 장기간 밀린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는 점은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일을 그만둔다고 한들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가지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

해보자.

첫 번째 걱정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자 또는 퇴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데 반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계속 운영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어서 A씨와 같은 상황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한다면 최종 3개

대지급금

월분의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700만원,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최종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1년 이내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2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된다.

만약 퇴사한 지 1년이 지나버렸다면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



이연주 공인노무사

령신청을 접수해 확정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지급 받은 퇴직금 등으로 당장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A씨는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2개월 이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

고 있다. A씨처럼 전액 체불이 아니더라도, 3할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지급한다. 상한액으로 일당 6만6000원,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의 80%(6만1568원)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진다.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업주와 관계로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나,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알게돼 조만간 좋은 결정을 마음 편하게 내릴 수 있겠다고 안심했다.

혹시 A씨와 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해주시라.

1588-6546